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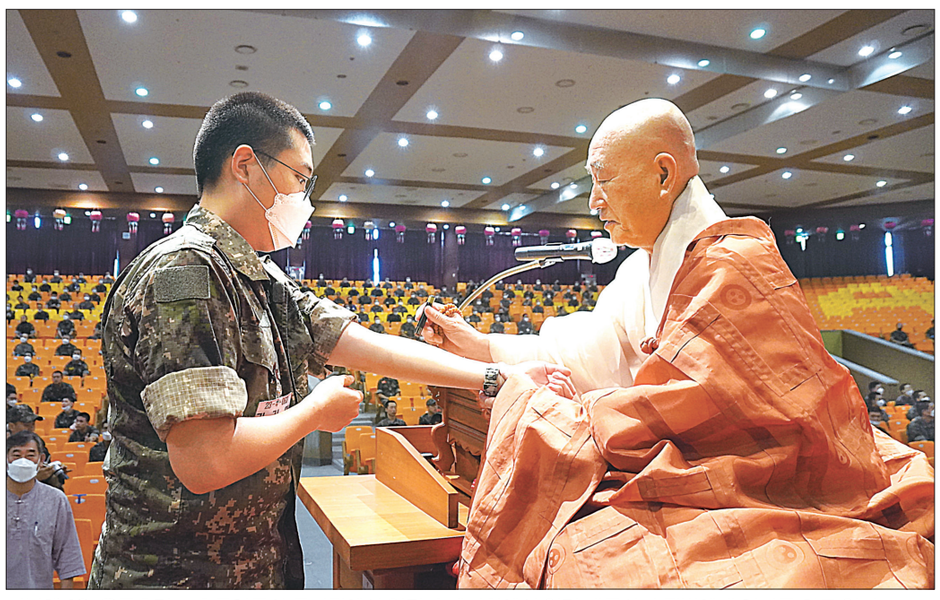
“중생 구제, 수행자가 공히 지닐 원력”

12면에 이어

종단 원로의원으로 후학에게 하는 당부

‘나는 왜 출가했나’ 마음을 항시 지녀야

불자들에겐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가져라”



지난해 9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일면 대종사가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생명나눔 걷기명상 플로깅 대회에서 일면 대종사가 가수 이소원 양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은사스님께서는 왜 스님에게 ‘일면(日面)’이라는 법명을 내려준 것일까요?”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손가락으로 해가 뜬 방향을 가리켰다.

“해(日)는 이 세상의 두두물물(頭頭物物)에게 이로운 빛을 주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햇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너무 적으면 만물이 자라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만물을 태워버립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운허 스님께서 내려주신 두산(斗山)이라는 법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흙을 한 말씩 떠서 옮겨 산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봉선사와 조계종의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하라는 당부가 깃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흙이 모여서 산을 이루고, 산들이 모여서 산맥을 이루는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심원한 뜻도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종단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필자의 말에 일면 스님은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법성게〉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처음으로 마음을 냈을 때가 바로 정각(正覺)을 이룬 때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여(眞如)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납니다. 처음 발심할 때의 마음만 퇴전하지 않고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중노릇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강건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정신을 지녀야 하는 것은 참선 수행자만이 아닙니다. 전법포교 현장에 있는 스님들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스님들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종단의 후학들은 항상 ‘내가 왜 출가했는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스님만의 선지식 선재영가

말을 마친 뒤 스님은 상반신 전체를 가로지르는 십자 모양의 수술자국을 보여줬다. 이어서 자신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경험담을 들려줬다.

2000년 1월 8일, 일면 스님은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스님이 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은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1982년. 일본어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의사는 “지속적으로 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스님은 조계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었던 터라 의사의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93년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에야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건강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악화돼 있었다. 그러던 중 일타 스님의 열반다비식에 다녀오는 길에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스님의 AST 지수는 8400. 정상인의 경우 AST지수가 20~30인 것을 감안하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심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전을 읽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스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뇌사 장기기증자가 나타났다. 당시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다. 앞 차례에 있는 네 사람 모두 장기기증자의 간을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스님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낮에 수술실에 들어간 스님은 새벽이 되어서야 중환자실로 옮겨질 수 있었다.

병실에 옮겨진 뒤 스님은 염불소리를 들었다. 스님은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온몸에 퍼지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염불을 따라서 외웠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병원 간호사들은 염불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간이식수술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후부터 스님은 종종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화두를 떠올리곤 했다. 그날 저녁 스님이 읊었던 염불은 어쩌면 스님에게 간을 보시하고 떠난 영가에게 바친 송가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스님이 지남(指南)으로 여기는 선지식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지은 뒤 대답했다.

“지월, 명허, 운허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저만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선재(善財)입니다. 제게 간을 주고 간 사람은 22세의 강원도 청년이었습니다. 규정상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이름을 선재 영가라고 부릅니다. 어느 절을 가든지 저는 청년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선재, 선재영가여, 착하디착한 영가여, 부디 극락왕생하소서’라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법장 스님이 육신마저 보시하고 적멸의 세계에 든 뒤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소임을 보면서 간절히 느끼는 것은 삶은 사계처럼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재 영가의 신체 일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수많은 인연들의 기억들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물려주고 갈 건가

차를 한 모금 마신 일면 스님은 자비의 가르침을 새길 것을 강조하며 법문을 이어갔다.

“부처님은 전생에 새끼 밴 어미 사슴을 위해서 자진해서 처형대에 오르는 니그로다 사슴이었습니다. 불자들은 더운 숨을 삼키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자라면 그 무엇보다도 불살생(不殺生)과 자비(慈悲)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불살생은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연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인식한다면 다른 생명체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의 슬픔을 더불어 서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절로 불국토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필자는 불암사 경내에 걸린 가지각색의 연등들을 올려다봤다. 지증 대사가 창건했고, 도선 국사가 중창했으며, 무학 대사가 삼창했다는 불암사에는 인조 16년(1638) 왕명에 따라 역대 스님들의 법통을 판각한 보물 제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이 봉안돼 있다. 창건 이래 천년 동안 불암사에는 민초들의 염원이 깃든 연등이 환히 불을 밝혔을 것이다.

필자는 시선을 돌려서 불암산을 올려다봤다. 고찰치고 민족의 역사가 깃들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마는 불암사는 실로 민족의 숨결이 깃든 도량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필자의 속내를 꿰뚫은 듯 일면 스님은 “불암사는 매년 호국의 달에 불암사 유격대를 기리는 천도재를 봉행한다”고 말했다. 불암산 유격대는 한국전쟁 개전 직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지 않고 불암산에 은신하면서 싸운 육사생도 13명과 기간병 7명을 일컫는다. 불암산 유격대가 전쟁 초 수개월간 적진 가운데서 살아남아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불암사 사중스님들의 덕분이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산문까지 따라나서며 필자를 배웅했다. 사하촌에 다다르니 일면 스님이 지은 〈나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법문〉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법화사상에 ‘한쪽 모퉁이를 비추면 천지가 밝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밝은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전체가 다 밝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삶과 사회에 지침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한쪽 모퉁이를 비출 빛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빈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 쥐려고는 해도 한 손을 비우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손쯤 남을 위해 비워두어도 됩니다.”

필자는 불암사를 뒤돌아본 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는 미당 서정주의 ‘푸르른 날’의 한 구절을 읊조렸다.

유응오 / 작가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